

일본 좌파의 국제주의 전통은 정말 부럽다.

○ ○

아시아에서 일본 좌파 세력만큼 국제주의 성향이 강한 곳이 많지 않은데, 일본 좌파 세력이 냉전 붕괴 이후 엄청 많이 축소되었지만, 이러한 국제주의 전통은 정말 많이 부럽다.

대표적인 사례가 '베헤이렌'과 한국 민주화운동 지원이었음.

베트남전쟁 당시 일본 좌파 세력들이 '베헤이렌'(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반전운동을 이끌어갔는데,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주일미군 탈영병들을 도피시켜서 제3국으로 망명 보내는 활동이었음.

이건 한겨레에서 연재한 기사들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검색 바람.

그리고 1970~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을 지원한 곳도 일본 좌파 세력들이었음.

일본 좌파 세력들은 원래 친북 성향이 강했고 한일협정 반대 운동 등을 거치면서 이런 성향이 더 강해졌지만, 반면 한국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었는데, 이걸 일시에 뒤집은 것이 바로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이었음.

이후 일본 좌파 세력들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든든한 우군이 되었고.

특히 1980년 전두환이 김대중을 죽이려고 할 때, 이를 막은 것이 일본 좌파 세력이었음.

김대중의 사형을 막기 위해 당시 일본의 가장 큰 노총이었던 총평이 대규모 시위와 파업에 나서고, 대학 총장들이 대규모로 연서명한 성명을 발표했던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밖에 안든다.

타국의 양심수를 구하기 위해 일본 시민사회가 총집결했으니.

심지어 이때 시바 료타로, 오에 겐자부로, 마쓰모토 세이초 등 유명 작가들도 김대중을 구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김대중 구명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음.

이처럼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고난에 부딪쳐 어려울 때마다, 기꺼이 손을 잡아줬던 일본 좌파 세력들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될 고마운 분들이지.

이후에도 과거사 청산 문제와 재일교포 차별 문제에 적극 연대해서 한국을 도와주고 있으니, 정말 감사할 뿐이고.